

본 연구는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이 만 2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프로그램 과정에서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W시의 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 12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하였고 실험집단에 주 2회씩, 총 11회의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적응적 사회적 행동 척도(Hogan et al., 1992)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Wilcoxon rank-sum test로 자료를 분석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전 회기를 녹화하고 Padgett(2001)의 제안을 따라 분석해 친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은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이 만 2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 주제어: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

친사회적 행동

만 2세 영아

##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이 만 2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변화 과정

### The Effect of a Group Program Using Theraplay on Prosocial Behavior of 2-year-old Infants and Process of Infants' Prosocial Behavior Change

김 태 은<sup>1)</sup> 전 아 정<sup>2)</sup>  
Tae Eun Kim A Jeong Jeon

#### I. 서론

나눔, 도움, 협력을 실천하는 데에는 인내와 희생이 수반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존중한다. 이러한 행위를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며 학술적으로는 타인에게 이득을 주려는 의도로 행하는 자발적 행동, 도움이나 협력, 위로 등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으로 정의된다(Dereli, 2019; 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Honig & Pollack, 1990; Kartner, 2018). 연구자들에 따르면 친사회적 행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Hogan, Scott과 Bauer(1992)는 친사회적 행동을 표현적 행동과 순응적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표현적 행동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요구를 설명하고 표현하며 원하는 바를 제안하는 것을 포함한다. 순응적 행동은 규칙, 약속을 지키고 타인의 요구에 협조하며 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Honig과 Pollack(1990)은 친사회적 행동을 나눔, 도움, 협력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행위, 타인을 돕는 시도, 공동 활동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함께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학자에 따라 정의, 유형에 차이가 있지만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개인적 성숙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독려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생의 첫 2년 동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결정적 시기는 만 2~5세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에는 인지능력이 확장되어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고 친사회적 행동은 상호교환적이라는 규범을 깨닫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크게 확장된다(Baglana & Demirok, 2016; New & Cochran, 2007; Svetlova, Nichols, & Brownell, 2010).

1)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제1저자

2) 마음샘언어심리센터 아동상담사, 교신저자  
(wishjkb@hanmail.net)

즉, 영유아기에는 친사회적 행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연습,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된다. 친사회적 행동은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사회적인 영유아는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도덕지식 수준이 높으며 감정조절을 잘할 뿐 아니라 언어발달, 학업수행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소정, 2006; 이설희, 2011; Dereli, 2019; Miles & Stipek, 2006). 따라서 영유아기 친사회적 행동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사회적 행동에는 만 2~4세 무렵의 경험과 학습이 영향을 미친다(Kärtner, 2018). 이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에게 친사회적 행동 경험을 제공해 성과를 거두었다(김정은, 2016; 남옥선, 2007; 이명선, 주은선, 2007; 전아정, 김태은, 2018; Siu, 2014; Wettig, Coleman, & Geider, 2011).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 중, 놀이치료의 한 유형인 치료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만 2~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치료놀이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협력, 사회적 기술과 행동조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ucker, Schieffer, Wills, Hull, & Murphy, 2017).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3세 영유아에게 10회의 집단치료놀이를 실시한 연구(김태은, 2015), 만 5세 유아에게 12회의 집단치료놀이를 실시한 연구(권은희, 2007)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3세 영유아에게 10회의 집단치료놀이를 실시한 연구(이신애, 2010)에서도 돕기, 나누기, 협력 행동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심리 서비스 책임자였던 Jernberg(1976)에 의해 개발된 치료놀이는 문제를 가진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애착 및 대인관계 촉진,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Booth & Jernberg, 2009). 치료놀이는 성인의 주도로 진행되며 상호작용, 반응, 감각 자극, 즐거움 제공을 중시한다. 치료놀이는 훌륭한 양육자의 자세에서 도출된 구조(structure), 도전(challenge), 개입(engagement), 양육(nurture) 원리에 기초한다. 구조는 경계를 설정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원리로 규칙과 한계가 있는 활동을 통해 구현된다. 구조 원리로 영유아는 안전감을 경험하고 규칙을 인식, 실천할 수 있게 된

다. 도전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일에 직면해 성취감, 자신감을 경험케 하는 원리이다. 도전 원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영유아는 유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도전해 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개입은 자녀에게 연결감을 제공하고 자녀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좋은 양육자의 자세가 반영된 원리이다. 참여자를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진행자의 자세를 통해 영유아는 교류의 즐거움, 사회적 관계를 체험할 수 있고 자신에게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양육 원리는 따뜻하고 편안하며 공감적인 양육자의 자세에서 도출된 원리이다. 먹이고 어루만지는 양육 활동으로 영유아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또한 세상이 자신에게 온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김윤경, 2004; 김태은, 2019; Booth & Jernberg, 2009; Siu, 2014). 정리하면, 영유아는 치료놀이를 통해 안전감, 친밀감, 자신감과 자존감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규칙 실천, 자기표현, 배려와 수용을 체험할 수 있다.

치료놀이 회기는 도입, 중심활동, 마무리 순으로 진행된다. 도입부는 인사와 체크업으로 구분되는데, 인사에서 진행자는 옛 친구와 재회한 것처럼 영유아에게 기쁨을 표현한다. 체크업에서 진행자는 영유아의 신체를 탐색하고 지난 회기와는 달라진 점, 지속되는 점을 발견해 알려준다. 체크업으로 영유아는 자기 향상성을 획득하고 자신이 성장,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중심활동에서는 구조, 도전, 개입, 양육 원리가 반영된 놀이를 실시해 목표를 달성한다. 마무리에서 진행자는 영유아와 이번 회기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만남을 상기시킨다(Booth & Jernberg, 2009).

치료놀이를 활용한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은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이 중, 두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프로그램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대인관계 학습, 이타심 경험, 사회화 기술 발달, 대인관계 기술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Berg, Landreth, & Fall, 2006; Yalom, 1995). 이에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집단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목표로,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만 2세

경이 되면 또래관계가 활성화되나(Brownell & Brown, 1992)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초보적인 상태이다. 이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강화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프로그램 과정에서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기여하고 친사회적 행동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은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 과정에서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연구를 통해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질적연구로 집단프로그램 과정에서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 1. 양적연구

#### 1) 연구대상

W시의 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세 영아 1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담임교사에게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평정토록 하여 하위 50%에 속한 영아들을 선별하였고 이 중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영아 12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유아 집단프로그램은 6~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문혁준 외, 201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6명(남: 3명, 여: 3명)을 배정하였다. 실험집단 영아의 월령 평균은 30.17개월, 범위는 27~35개월이었고 통제집단의 월령 평균은 29.83개월, 범위는 26~35개월이었다.

#### 2) 연구도구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Hogan 등(1992)이 개발한 적응적 사회적 행동 척도(adaptive social behavior inventory)의 친사회적 행동 하위척도를 김난실(200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표현적 행동 13문항, 순응적 행동 10문항으로 구성된다. '다른 친구가 슬퍼할 때는 위로해 주고, 화가 나 있을 때는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같은 문항으로 표현적 행동을 측정한다. 순응적 행동은 '친구를 도와준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된다. 총 23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또는 항상 그렇다'까지의 3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23~69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3) 자료분석

SPSS 23.0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월령 평균,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친사회적 수준이 동질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검사 결과에 대해 Wilcoxon rank-sum test를 실시해 본 프로그램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 2. 질적연구

#### 1) 자료수집 및 분석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의 전 회기를 녹화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Padgett(2001)가 제안한 절차를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사, 코딩, 범주화, 재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1회기 전체 녹화 영상을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 반복해 읽으며 친사회적 언어와 행동을 영아별, 회기별로 정리해 코드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언어와 행동을 묶어 범주화하였다. 이후 범주화 자료를 재검토하며 예외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 2) 연구의 신뢰성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

(1986)의 제안을 따랐다. 질적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에게 본 연구에 적절한 질적 분석법, 해당 분석법 적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또한 두 명의 분석자가 함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들은 영아 언어 및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범주들에 잘못 배정된 사례는 없는지, 범주 명이 사례들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지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분석자 간 의견이 다를 때에는 원자료를 검토해 합의하였고 분석 완료 후에는 자료를 다시 읽으며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였다.

### 3. 연구절차

2019년 2월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집단치료놀이는 주 1~2회씩 10~20회, 회당 30~40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과(Booth & Jernberg, 2009) 연구대상이 속한 어린이집의 일정을 고려해 총 11회, 매회 40분 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선행연구(김태은, 2015; Booth & Jernberg, 2009; Siu, 2014)를 참고해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후, 아동상담 지도감독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쳐 일부 활동의 난이도와 실시 방법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세 영아 6명에게 전 회기를 예비실험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2019년 3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연구대상의 담임 교사 두 명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부모들에게 연구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대상의 담임교사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교사의 관찰 허락 요청이 있었다. 연구자, 교사, 지도감독 전문가가 상의해 이 교사가 일부 회기의 중심활동을 관찰,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교사는 총 6회에 관찰자로 참여하면서 3개의 중심활동 진행을 보조하였다(예; 진행자와 함께 영아를 안아서

옮겨주기).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험집단에 주 2회씩, 총 11회, 매회 40분 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이 속한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오전 자유활동 시간에 아동상담사인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아동상담 지도감독 전문가에게 3회의 지도감독을 받았다. 연구자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질문과 회기 녹화 영상을 전문가에게 전달하면 전문가는 질문에 대한 답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진행자의 자세에 관한 조언을 제공했다. 2019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연구대상의 담임교사 두 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사 완료 후에는 통제집단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4.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Hogan 등(1992), Eisenberg 등(2006)의 연구를 토대로 표현적 행동 향상과 순응적 행동인 규칙준수, 협력 및 도움 증진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친밀감, 타인 인식, 행동조절은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므로(Siu, 2014; Tucker et al., 2017) 이들 요인의 향상도 목표로 하였다. 매 회기는 도입(인사와 체크업 5분), 중심활동(25분), 마무리(10분)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입과 마무리에서는 친밀감과 응집력을 형성하고 사회적 규범 이해를 돕기 위해 집단원 간 스킨십, 인사 활동 등을 실시했다. 중심활동에서는 구조, 개입, 도전, 양육 활동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토대인 안전감, 자신감, 타인 인식을 촉진하고 순응적 행동을 형성하고자 했다. 진행자는 전 과정에 걸쳐 반영, 수용을 실천해 영아들의 표현적 행동을 격려했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적용된 치료놀이의 원리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단계	회기	목표	과정	내용	원리
초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규칙 이해</li> <li>• 친밀감 형성</li> </ul>	도입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노래 부르기</li> <li>• 프로그램 목적, 규칙설명</li> </ul>	구조, 개입 양육
			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탐색</li> <li>• 집단원 간 스킨십</li> </ul>	
			중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션 그림 그리기</li> </ul>	구조, 개입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응집력 형성</li> <li>• 규범 이해·실천</li> </ul>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원과 악수하기</li> <li>• 작별 노래 부르기</li> </ul>	양육, 구조

표 1.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계속)

단계	회기	목표	과정	내용	원리	
초기	2	• 친밀감 형성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활동	• 몸으로 달팽이 집 짓기 • 집단원의 얼굴 꾸며주기		구조, 개입 도전, 양육
		• 타인 인식 향상 • 규칙준수 향상	마무리	• 집단원과 악수하기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 집단 응집력 형성 • 규범 이해·실천
		3	• 친밀감 형성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활동	• 숨 공 축구하기 • 이불 썰매 타기	
	• 타인 인식 향상 • 규칙준수 향상		마무리	• 포옹하기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 집단 응집력 형성 • 규범 이해·실천
	4		• 친밀감 강화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활동	• 배 타고 강 건너기 • 비눗방울 터뜨리기 • 씨앗(영어) 성장 표현하기	
		• 행동조절 증진 • 규칙준수, 협력 증진	마무리	• 친구에게 로션 발라주기 • 샌드위치 포옹하기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 집단 응집력 강화 • 규범 이해·실천
중기 I		5	• 친밀감 강화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활동	• 지시따라 움직이기 • 교사와 협력해 풍선 지키기	
	• 행동조절 증진 • 규칙준수, 협력 증진	마무리	• 볼 보보하기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 집단 응집력 강화 • 규범 이해·실천	
	6	• 친밀감 강화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활동	• 밀가루 징검다리 건너기 • 밀가루 반죽으로 친구 꾸미기		구조, 개입 도전, 양육
• 행동조절 증진 • 규칙준수, 협력 증진		마무리	• 친구 손 닦아주기 • 볼 보보하기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 집단 응집력 강화 • 규범 이해·실천	



표 1.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계속)

단계	회기	목표	과정	내용	원리
7		• 친밀감 강화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 활동	• 친구와 휴지 끊기 • 휴지 공 농구 • 진행자로부터 교사 구하기	구조, 개입 도전, 양육
		• 집단 응집력 강화 • 규범 이해 · 실천	마무리	• 친구 다리 안마하기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중기II	8	• 친밀감 강화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 활동	• 진행자 따라하기 • 진행자로부터 친구 구하기	구조, 개입 도전
		• 집단 응집력 강화 • 규범 이해 · 실천	마무리	• 포옹하기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9		• 친밀감 강화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 활동	• 콩 주머니 머리에 놓고 인사하기 • 콩 주머니 축구/농구 • 스카프 줄다리기	구조, 개입 도전, 양육
		• 집단 응집력 강화 • 규범 이해 · 실천	마무리	• 친구 안마하기 • 집단원과 코로 · 보보호기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10		• 친밀감 강화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 활동	• 구호에 맞춰 움직이기 • 스카프로 풍선 옮기기/튀기기 • 숨겨진 꽃(영어) 찾기	구조, 개입 도전, 양육
		• 집단 응집력 강화 • 규범 이해 · 실천	마무리	• 진행자가 안마해주기 • 검지 하이파이브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후기		• 친밀감 강화	도입	인사 • 인사 노래 부르기 체크업 • 신체 탐색 • 집단원 간 스킨십	구조, 개입 양육
			중심 활동	• 신체 부위 맞대기 • 진행자와 교사가 영아를 안아서 옮겨주기 • 손도장 찍기	구조, 개입 양육
		• 집단 응집력 강화 • 규범 이해 · 실천 • 변화 확인	마무리	• 지난 회기 회상하기 • 포옹하기 • 작별 노래 부르기	양육, 구조

### III. 결과 및 해석

#### 1. 양적연구: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하위영역 점수와 총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프로그램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에 대해 Wilcoxon rank-sum test

를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표현적 행동과 순응적 행동이 변화하였다. 실험집단의 표현적 행동( $z = -2.23, p < .05$ )은 프로그램 참여 후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모든 영아들이 음의 순위를 보여 모든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통제집단의 표현적 행동( $z = -.11, n.s.$ )은 사전-사후 측정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의 표현적 행동 평균은 사전검사에서 18.00( $SD = 2.37$ )이던 것이 사후검사에서는 26.33( $SD = 3.01$ )으로 8.33점 상승하였다.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전검사 22.83( $SD = 6.82$ ), 사후검사 23.33( $SD = 7.58$ )으로 0.5점 상승하였다.

순응적 행동은 실험집단( $z = -2.21, p < .05$ )과 통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 $N = 12$ )

변인(점수 범위)		집단	$N$	평균 순위	순위 합	Mann-Whitney U	$z$	$p$
친사회적 행동 하위영역	표현적 행동 (13~39)	실험	6	5.17	31.00	10.00	-1.30	.19
		통제	6	7.83	47.00			
	순응적 행동 (10~30)	실험	6	6.67	40.00	17.00	-.16	.87
		통제	6	6.33	38.00			
친사회적 행동 총점 (23~69)		실험	6	5.33	32.00	11.00	-1.14	.26
		통제	6	7.67	46.00			

표 3.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비모수 검증 결과

( $N = 12$ )

변인 (점수 범위)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음의 순위 $N$	양의 순위 $N$	동률		$z$ ( $p$ )			
		$M$ ( $SD$ )	$M$ ( $SD$ )			$MR$ ( $SR$ )	$MR$ ( $SR$ )				
친 사회적 행동 하위 영역	표현적 행동 (13~39)	실험	18.00 (2.37)	26.33 (3.01)	6	3.50 (21.00)	0	.00 (.00)	0	-	-2.23* (.03)
		통제	22.83 (6.82)	23.33 (7.58)	3	3.33 (10.00)	3	3.67 (11.00)	0	-	-.11 (.92)
	순응적 행동 (10~30)	실험	15.00 (2.83)	21.83 (3.06)	6	3.50 (21.00)	0	.00 (.00)	0	-	-2.21* (.03)
		통제	14.67 (2.66)	18.33 (3.33)	6	3.50 (21.00)	0	.00 (.00)	0	-	-2.21* (.03)
친사회적 행동 총점 (23~69)		실험	33.00 (4.10)	48.17 (4.54)	6	3.50 (21.00)	0	.00 (.00)	0	-	-2.21* (.03)
		통제	37.50 (9.07)	41.67 (9.33)	5	3.80 (19.00)	1	2.00 (2.00)	0	-	-1.79 (.07)

\*  $p < .05$

제집단( $z = -2.21, p < .05$ )에서 모두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모든 영아들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순응적 행동 평균을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은 15.00( $SD = 2.83$ )에서 21.83( $SD = 3.06$ )으로 6.83점 상승하였고 통제집단은 14.67( $SD = 2.66$ )에서 18.33( $SD = 3.33$ )으로 3.66점 상승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총점은 실험집단( $z = -2.21, p < .05$ )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실험집단 전원이 음의 순위를 보여 모든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었다. 통제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z = -1.79, n.s.$ )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사후검사 평균을 비교하면, 실험집단의 점수는 사전검사 33.00( $SD = 4.10$ ), 사후검사 48.17( $SD = 4.54$ )로 15.17점 상승했다.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전검사 37.50( $SD = 9.07$ ), 사후검사 41.67( $SD = 9.33$ )로 4.17점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 2. 질적연구: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 과정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단계에서 영아들은 규칙 위반, 또래 방해 및 공격 행동을 반복하였다. 중기 I 단계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중기 II 단계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지속,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후기단계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안정화되고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기술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영아의 특성을 표 4에 제시하였다.

### 1) 초기단계(1~3회기): 규칙 위반, 또래 방해 및 공격 행동의 반복

초기단계 동안 영아들은 활동 순서와 방법, 도구 공유에 관한 규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고 갈등 시 소리를 지르거나 또래를 미는 등 친사회적 행동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1회기에서는 대부분의 영아들이 치료도구인 로션을 독점하려 했고 서로 먼저 로션을 쓰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회기가 끝나고 진행자가 순서대로 영아의 복장을 정돈해 주는 동안 다른 영아들은 모두 치료실을 뛰어다녔다. 진행자의 개입에도 모든 영아들이 규칙 지키기를 어려워했다. 2회기에서도 영아들은 자주 규칙을 위반했다. 또래의 얼굴을 스티커로 꾸며주는 활동에서는 규칙을 반복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과 치료실 바닥에 스티커를 붙였다. 3회기에서는 치료도구인 슝 공을 A, B, E가 독차지해 갈등이 생겼고 F와 부딪힌 E는 F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불 썰매 타기 활동 중 B는 자리를 침범한 C를 발로 밀었고 C는 비키지 않고 버텼다. 이처럼 초기단계에서 영아들은 규칙 위반, 방해 및 공격 행동을 반복해서 보였고 이에 또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 2) 중기 I 단계(4~6회기): 친사회적 행동의 출현

영아들은 진행자의 설명·개입이 있을 시 순응적 행동을 나타냈고 자발적으로 표현적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4회기에서 B는 또래의 손을 잡아

표 4. 참여 영아의 특성

영아	성별	월령	친사회적 행동 관련 특성	친사회적 행동	
				사전	사후
A	남	31	주로 혼자 놀며 또래가 놀이에 끼어들면 놀이를 중단함. 규칙 지키기를 어려워함	32	47
B	여	35	혼자 놀이를 즐기고 갈등 시 밀기, 찌푸리기, 빠치기를 나타냄. 놀잇감을 공유하려 하지 않음	36	47
C	남	27	갈등 시 밀기 행동을 나타냄. 또래의 요구에 비협조적임	33	48
D	남	27	밀기로 요구를 표현함. 놀잇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맘에 드는 물건을 뺏음. 규칙준수를 어려워함	26	44
E	여	34	교사의 도움이 있으면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음. 갈등 관계에 있는 또래에게 소리를 잘 지름	33	46
F	여	27	또래 요구에 협조적인 편이나 의사표현을 잘 하지 않음	38	57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 하였으나 진행자가 규칙을 설명하자 C에게 손을 내밀었다. 5회기에서 D는 A의 풍선을 뺏었으나 진행자가 규칙을 상기시키자 A에게 풍선을 돌려주었다. 6회기에서 B와 D는 밀가루 반죽을 독점하려 했으나 규칙을 설명하자 또래와 반죽을 공유했다. 이처럼 영아들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고 진행자의 설명과 개입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경우는 드물었고 규칙준수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아 진행자가 반복해서 규칙을 상기시켜야 했다.

영아들은 자발적으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행동을 보였다. 예를 들면, 4회기에서 C는 또래에게 함께 놀고 싶다고 말로 표현하였다. 혼자 놀이를 즐겼던 A는 6회기에서 E를 안으며 친밀감을 표현했다. 이처럼 중기 I 단계에서는 진행자가 설명·개입할 경우 규칙을 지켰고 자발적으로 또래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했다. 이에 순응적 행동과 표현적 행동에 해당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출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중기 II단계(7~9회기): 친사회적 행동의 지속과 확장

중기 I 단계에서 나타났던 규칙준수, 친밀감 표현 행동이 지속되었다. 7회기에서 B는 활동 중 자리를 이탈하다가 진행자와 눈이 마주치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8회기에서 먼저 활동을 마친 A와 E는 또래들이 활동을 마칠 때까지 제자리를 지키며 또래를 응원했다. 이처럼 중기 I 단계에서 시작된 순응적 행동과 표현적 행동은 중기 II 단계에서도 지속 되었다.

영아들은 도움이라는 새로운 순응적 행동을 보였다. 9회기에서 C는 바닥에 떨어진 E와 F의 콩 주머니를 주워주었고 또래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표현적 행동은 이전 단계에서 보다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다. 모든 영아들이 또래, 진행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자주 웃었고 고마움과 위로를 표현했다. C는 또래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정한 8회기 활동에서 또래에 대한 걱정을 언어로 표현하며 또래를 구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9회기 콩 주머니 활동에서는 모든 영아들이 또래의 도움에 고개 숙여 인사하거나 '고마워'라고 감사를 표했다. 평소 표현을 잘 하지 않는 F는 몸이 좋지 않은 B를 진행자가 다독이자 B의 볼을 쓰다듬었다. 이처럼

영아들은 중기 I 단계에서 습득한 친사회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했고 도움, 고마움과 위로라는 새로운 형태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이에 친사회적 행동이 지속·확장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4) 후기단계(10~11회기): 친사회적 행동의 안정화와 확장

중기 II 단계에서 관찰됐던 규칙준수, 표현 행동, 도움 행동이 빈번하게, 적절한 때에 나타나 안정화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기단계 동안 영아들은 거의 모든 활동에서 규칙을 잘 지켰다. 영아들은 친밀감, 감사를 표했으며 또래의 친밀감 표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또래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또래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 예를 들면, 로션 바르기 활동 중 또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A는 상처에 로션을 발라주었고 또래들은 이를 즐겁게 받아들였다. 진행자가 영아들을 안아 옮겨주자 C는 '선생님, 고마워요.'라고 감사를 표현했다. F는 또래들을 바라보던 B를 안아 주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왔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인 방식의 요구 표현과 또래의 요구를 저항 없이 수용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예를 들면, 차례를 기다리던 C가 소리를 지르자 D와 E가 C의 입술에 손가락을 올리며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C는 곧 소리 지르기를 멈췄다. 요구 표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영아들의 언어적 요구 표현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B는 E가 자신의 손을 놓고 자리를 이동하려 하자 'E야, 이리와.'라고 하였고 E는 자신이 떨어뜨린 풍선을 C가 만지자 '나 줄래?'라고 말로 요구를 표현하였다. 또한 협력, 협조 행동이 증가했다. 10회기 스카프로 풍선 옮기기 활동에서는 A가 또래보다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풍선이 떨어졌다. 하지만 곧 또래에 맞춰 몸을 움직였고 활동에 성공했다. 11회기 짝과 신체 맞대기 활동에서는 모든 영아들이 짝에게 맞춰 움직임을 조절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후기 단계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적절한 때에, 빈번하게, 자발적으로 나타나 안정화된 것으로 보였고 언어적 요구 표현이 증가하였다. 또한 또래의 요구를 저항 없이 수용했고 협력 행동을 보여 친사회적 행동이 확장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빈도와 강도에 개인차는 있었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단계 별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 양상을 표현적 행동과 순응적 행동으로 구분해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단계 별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

단계	표현적 행동	순응적 행동
초기	-	-
중기 I	• 친밀감 표현	• 진행자의 설명·개입이 있을 시 규칙 준수
중기 II	• 친밀감 표현·감사, 위로 표현	• 규칙 준수·도움
후기	• 친밀감 표현·감사 표현 • 요구 표현(특히, 언어적 표현)	• 규칙 준수·도움·요구 수용·협력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은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양적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총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통제집단의 총점은 변화가 없었다.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을 보면, 본 프로그램은 표현적 행동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이는 집단치료놀이 후 유아의 자기주장, 또래 위로 및 관심 표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명선, 주은선, 2007), 영아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표현과 정서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윤경, 2007)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집단치료놀이 후 발달 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사회적 의사소통 수준, 요구 표현과 언어적 제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iu, 2014)를 지지한다. 이러한 성과는 치료놀이의 원리로 표현적 행동에 관여하는 요인이 촉진됐기 때문일 수 있다. 표현적 행동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단서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발현된다

(Siu,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입 원리를 적용, 혼자 놀이를 배제하고 팀 활동이나 집단원과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활동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양육 원리를 적용해 집단원과의 눈맞춤, 접촉이 필요한 활동을 매 회기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관계를 형성했고 타인을 탐색했으며 사회적 단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전 원리에 기반한 활동들도 표현적 행동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도전 활동은 성취에 대한 기쁨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표현의 토대인 자신감을 촉진하기 때문이다(Munns, 2009; Siu, 2014). 한편, 관계 형성과 타인 탐색은 환경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Siu, 2014). 이에 구조 원리를 적용해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고 모든 회기를 도입, 중심활동, 마무리 순으로 진행해 영아가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진행자가 반영적·수용적 태도를 유지한 것,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한 것도 표현적 행동 향상에 기여했을 수 있다. 진행자에게 자기표현이 수용됨을 경험한 영아들이 표현적 행동을 더 빈번하게 나타내고 이를 관찰한 또래들이 표현적 행동을 학습, 모방하면서(Yalom, 1995) 모든 영아의 표현적 행동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순응적 행동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 이유로 영아-교사 관계, 교사와 부모의 행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아-교사 친밀관계는 유아의 도움, 나눔 행동과 정적상관이 있고 교사가 참여적 행동(예; 질문, 설명)을 많이 할수록 영아의 순응적 행동 수준이 더 높게(김난실, 2004; 서소정, 변민지, 하지영, 2016)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전검사는 영아-교사 상호작용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3월 초에 실시됐고 사후검사는 그로부터 6주 후에 실시되었다. 6주 동안 통제집단이 교사와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교사의 참여적 행동을 경험한 결과, 이들의 순응적 행동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통제집단의 순응적 행동에는 부모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Deković와 Janssens(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영, 나유미(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규칙 협상을 잘하고 유아의 의도를 인정할수록 유아의 순응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통제집단의 부모는 교사를 통해 바람직한 영아 지도방안을 학

습하였고 부모가 이를 자녀 양육에 반영한 결과, 통제 집단 영아들의 순응적 행동이 향상됐을 수 있다. 정리 하면, 순응적 행동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통제집단의 순응적 행동에는 교사와 부모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영아의 순응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인 주요 방안이라고 결론짓긴 어렵다. 하지만 사전-사후검사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순응적 행동 점수 상승폭(실험집단: 6.83, 통제집단: 3.66)이 더 컸고 친사회적 행동 총점은 실험집단에서만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점진적,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초기단계에서 영아들은 규칙 위반, 또래 방해 및 공격 행동을 반복했다. 진행자가 설명·개입해도 잘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또래 갈등이 발생했다. 이와 달리, 위축·수동형 영아 집단에 치료놀이를 실시한 연구에서는(김윤경, 2007) 규칙준수와 관련된 지시 따르기 점수가 시작단계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두 연구 대상의 기질적 특성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사회적 행동은 기질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ing, George, & Hebl, 2005; Paulus, et al., 2015) 본 연구는 일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반면 선행연구(김윤경, 2007)는 위축, 수동형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초기단계 행동 양상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기 I 단계에서 영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또래에게 언어적·비언어적 친밀감을 표현해, 표현적 행동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순응 행동인 규칙준수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규칙을 준수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진행자가 반복해서 설명·개입해야 했다. 중기 II 단계에서 영아들은 친밀감, 감사와 위로를 표현했다. 또한 진행자의 개입 없이도 규칙을 준수하고 또래를 도와 표현적, 순응적 행동이 지속·확장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치료놀이의 원리가 반영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초기단계부터 중기 II 단계까지 개입, 양육 활동을 실시해 온 결과, 영아들은 집단원과의 친밀감, 집단 응집력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도전 활동으로 자신감이 향상됨에 따라 친밀감, 감사 및 위로 표현, 도움 행동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Yalom(1995)에 따르면 집단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집단에서 이타심을 경험한다. 즉, 집단프로

그램을 실시한 것도 위로 표현,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구조 원리가 반영된 활동 예를 들면, 규칙과 범위가 명료한 활동을 반복 실시한 것은 규칙준수 행동의 점진적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놀이는 진행자에게 분명한 지시와 규칙, 한계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데(Booth & Jernberg, 2009) 진행자가 이 원칙을 충실히 이행한 것도 영아의 규칙 이해와 수행을 촉진했을 것이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인 행동조절(Tucker et al., 2017) 향상을 목표에 포함시키고 행동조절이 요구되는 활동 예를 들면, 진행자의 지시 따라 움직이기 등을 실시한 것도 규칙준수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기단계에서는 중기 II 단계에서 등장한 친사회적 행동에 더해, 요구 표현과 요구 수용이 관찰되었다. 요구 표현과 수용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Dodge, 1983; Macinnes, 2006). 또한 요구 표현은 또래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요구 표현과 수용의 증가는 영아의 자신과 타인 인식, 수용이 향상되고 집단에 대한 신뢰가 강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집단치료놀이는 자신과 타인 인식 및 수용, 집단에 대한 신뢰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은, 2019; Booth & Jernberg, 2009; Simeone-Russell, 2011).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도 프로그램 중 이를 경험했고 그 결과, 요구 표현 및 수용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적 행동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후기단계 들어서 언어적 요구 표현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치료놀이의 종결기에서 영유아 및 아동의 언어적 표현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윤경, 2007; 안영진, 김윤경, 2006; Siu, 2014). 영아기는 언어발달에 중요한 시기인데, 치료놀이 과정에서 영아의 언어적 요구 표현이 증가했다는 것은 치료놀이가 영아의 언어표현 촉진에 유용한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기단계에서는 순응적 행동인 협력도 증가하였다. 이는 집단치료놀이 과정에서 영유아의 협력 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이명선, 주은선, 2007; Siu, 2014)와 일치한다. 집단치료놀이는 ‘함께하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 작업, 집단원 간 협력 실천을 권장한다(Booth & Jernberg, 2009). 본 연구에서는 이 원칙을 따라 협력이 요구되는 활동들을 실시했고 발달수준이 상이한 영아들이 팀을 이뤄 작업하게 하였다. 이를 통



해 영아들은 협력의 필요성과 장점을 깨달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치료놀이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해 연구결과를 이해해야 하며 한계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시행되길 기대한다. 첫째, 어린이집 한 곳에 재원 중인 영아 6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영아들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응적 행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향상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교사와 부모 변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이 변인의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친사회적 행동 변화 분석에 대해 프로그램에 관찰자로 참여했던 교사의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분석 결과에 대해 관찰자의 피드백을 구한다면 결과의 신뢰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연구대상의 담임교사만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담임교사는 교실에서의 친사회적 행동 변화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은 교실 밖 상황, 또래 및 교사 관계 외에서도 표출·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교실 밖 상황에서 영아를 관찰하고 평정한 자료도 함께 분석한다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권은희(2007). 집단치료놀이를 통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연구. **아동복지연구**, 5(2), 67-84.

김난실(2004). 만2세반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경(2004). 치료놀이를 적용한 영아보육 모형. **아동복지연구**, 2(2), 17-37.

김윤경(2007). 집단치료놀이가 불안정애착 영아집단의 정서 및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4), 39-51.

김정은(2016). 통합환경내 집단미술치료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은(2015). 유아-교사 친밀관계 및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221-240. doi:10.14698/jkccce.2015.11.221

김태은(2019). 치료놀이 교육이 대학원 재학 중인 보육교사의 자기수용과 타인수용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125-144. doi: 10.22251/jlcci.2019.19.12.125

남옥선(2007). 음악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만 2세(25-36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4(2), 18-40.

문혁준, 김정민, 김태은, 양성은, 이진숙, 이희선(2014). **아동상담**. 서울: 창지사.

서소정(2006).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의 요구전략, 언어발달, 어머니의 친사회성에 관련된 양육신념 및 사회화전략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287-310.

서소정, 변민지, 하지영(2016).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유아-교사 관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6(4), 245-269. doi:10.21213/kjccce.2016.16.4.245

안영진, 김윤경(2006). 영아의 정서발달을 위한 치료놀이 보육프로그램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0(1), 35-52.

이명선, 주은선(2007). 질적 분석을 통해 본 집단 치료놀이가 일반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2, 133-144.

이설희(2011). 그림책을 활용한 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문제해결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신애(2010).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영아의 공격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 나유미(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전아정, 김태은(2018).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중심 집단 놀이치료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6), 35-51. doi:10.14698/jkccce.2018.14.06.035

- Baglama, B., & Demirok, M. S. (2016). Determination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views o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Cypriot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11(4), 213-222. doi:10.18844/cjes.v11i4.1297
- Berg, R. C., Landreth, G. L., & Fall, K. A. (2006). *Group counseling: Concepts and procedures* (3rd ed.). NY: Routledge/Taylor & Francis.
- Booth, P. B., & Jernberg, A. M. (2009). *Theraplay: Helping parents and children build better relationships through attachment-based play*. NY: John Wiley & Sons.
- Brownell, C. A., & Brown, E. (1992). Peers and play in infants and toddlers. In V. B. Van Hasselt & M. Hersen (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pp. 183-200). NY: Plenum Press.
- Deković,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doi:10.1037/0012-1649.28.5.925
- Dereli, E.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ocial behaviours, aggression types and moral-social rule knowledge in preschool children. *Cypriot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14(1), 42-55. doi:10.18844/cjes.v14i1.3642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6), 1386-1399. doi:10.2307/1129802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646-718). NJ: John Wiley & Sons.
- Hogan, A. E., Scott, K. G., & Bauer, C. R. (1992). The adaptive social behavior inventory(ASBI): A new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high-risk three-year-old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0(3), 230-239. doi:10.1177/073428299201000303
- Honig, A. S., & Pollack, B. (1990). Effects of a brief intervention program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s in young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6), 438-444. doi:10.1207/s15566935eed0106\_3
- Jernberg, A. (1976). Theraplay technique. In C. Schaefer (Ed.), *Therapeutic use of child's play* (pp. 345-349). NY: Jason Aronson.
- Kärtner, J. (2018). Beyond dichotomies-(m)others structuring and the development of toddlers' prosocial behavior across cultur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0, 6-10. doi:10.1016/j.copsyc.2017.07.040
- King, E. B., George, J. M., & Hebl, M. R. (2005). Linking personality to helping behaviors at work: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73(3), 585-607. doi:10.1111/j.1467-6494.2005.00322.x
- Lincoln, Y. S., & Guba, E. G. (1986). But is it rigorous? Trustworthiness and authenticity in naturalistic evaluation. *New Directions for Program Evaluation*, 30, 73-84. doi:10.1002/ev.1427
- Macinnes, D. L. (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5), 483-489. doi:10.1111/j.1365-2850.2006.00959.x
- Miles, S. B., & Stipek, D. (2006).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social behavior and literacy achievement in a sample of low-income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 Development*, 77(1), 103-117. doi:10.1111/j.1467-8624.2006.00859.x
- Munns, E. (2009). *Applications of family and group therapy* (2nd e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New, R. S., & Cochran, M.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Westport, CT: Praeger.
- Padgett, D. K.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서울: 나눔출판(2001 원저 발간).
- Paulus, M., Licata, M., Kristen, S., Thoermer, C., Woodward, A., & Sodian, B. (2015). Social understanding and self-regulation predict pre-schoolers' sharing with friends and disliked peers: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9(1), 53-64. doi:10.1177/0165025414537923
- Simeone-Russell, R. (2011). A practical approach to implementing therapy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0(4), 224-235. doi:10.1037/a0024823
- Siu, A. F. Y. (2014). Effectiveness of group therapy on enhancing social skills amo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3(4), 187-203. doi:10.1037/a0038158
- Svetlova, M., Nichols, S. R., & Brownell, C. A. (2010). Toddlers' prosocial behavior: From instrumental to empathic to altruistic helping. *Child Development*, 81(6), 1814-1827. doi:10.1111/j.1467-8624.2010.01512.x
- Tucker, C., Schieffer, K., Wills, T. J., Hull, C., & Murphy, Q. (2017). Enhancing social-emotional skills in at-risk preschool students through therapy based groups: The sunshine circl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6(4), 185-195. doi:10.1037/pla0000054
- Wettig, H. H. G., Coleman, A. R., & Geider, F. J. (2011).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rapy in treating shy, socially withdraw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0(1), 26-37. doi:10.1037/a0022666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The Effect of a Group Program Using Theraplay on Prosocial Behavior of 2-year-old Infants and Process of Infants' Prosocial Behavior Change

Tae Eun Kim

Professor, Dept. of Child Studies and Education, Hanyang Cyber University

A Jeong Jeon

Child Counselor, Mindkids Language Speech Psychology Center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 group program using theraplay on 2-year-olds' prosocial behavior. The changes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process of program were also examined.

**Methods:** Subjects were 12 infants who attended a child care center in W city. Subjects were attached to the experimental or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11 group theraplay sessions twice a week. The adaptive social behavior inventory (Hogan et al., 1992) was used for pre and post tests. Wilcoxon rank-sum 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 group theraplay program. Every sessions was video-taped and recorded verbatim. The verbatim were analyzed using the Padgett (2001)'s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

**Results:** Infants who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prosocial behavior. Their expressive behavior and compliant behavior gradually increased over the sessions.

**Conclusion/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the use of group program utilizing theraplay was an effective strategy for improving prosocial behavior of 2-year-old infants.

**Keywords:** group program using theraplay, prosocial behavior, 2-year-old infant

Received July 30, 2019

Revision received August 28, 2019

Accepted September 15, 2019